

■ "이병철식 경영, 신유교주의 기반 독창적 모델"

입력 : 2010-02-10 06:01:08

"이병철식 경영, 신유교주의 기반 독창적 모델"

< 이 기사는 2010년 02월 10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중수 기자 =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故) 이병철 회장의 경영방식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신적 밑바탕인 신(新)유교주의에 선진 각국의 경영방식을 종합한 독창적인 경영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 소르본대의 도미닉 바흐조 교수와 이 대학 극동연구센터의 량리 박 바흐조 연구원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경제연구소 주최로 호텔신라에서 열린 '이병철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그의 경영방식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들은 "호암은 한국의 신유교주의와 일본식 경영시스템, 독일식 생산방식, 그리고 미국의 관리방식을 종합해 독창적 모델을 창조했다"며 "그의 리더십 하에서 삼성은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을 보이면서 한국 대기업의 상징이자 표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서유럽의 기술장벽을 넘기 위한 인재양성 투자, 실천 중시 사고, 조직을 통한 관리 등도 이병철 경영의 두드러진 점으로 꼽았다.

연세대 장진호 교수(경영학)는 "이 회장은 국내 최초로 공개경쟁 채용제와 비서실, 사업부제를 도입했다"면서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제도의 틀에 담아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경영체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송재용 교수(경영학)는 "삼성은 반도체사업의 성공 DNA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식 경영방식에 미국식 경영방식을 접목해 대규모이면서도 스피디하고 다각화와 전문화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면서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고루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 교수는 "삼성은 인재의 채용과 육성, 등용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구축해 '삼성 사관학교'로 불린다"면서 "호암의 인재경영은 창업기부터 우수한 인재의 스카우트와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미쓰비시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집단(재벌)의 공과에 대해 발표한 타룬 칸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새 회사를 창업해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긍정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방 안에 큰 코끼리가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외의 재계·학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이 '호암의 추억'을 주제로 특강했다.

jsking@yna.co.kr

(끝)